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봄이 왔다. 누군가에게는 올 것 같지 않던 봄이, 또 누군가는 그렇게 기다렸 건만 끝내 보지 못한 봄이 왔다. 계절이 바뀔 때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이 계절 을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한 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속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변 화'가 담겨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비슷하다. 인 간이라는 존재의 유한성은 그대로이지 만 결국 그 안에서 변화는 계속되고 있 다. 인간은 조금 더 적극적인 변화를 이 끌어 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 다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까? 20세기에는 이 말이 주는 느낌이 비 교적 명확했다면, 지금 21세기에는 쉽사 리 설명하기 힘든 주제가 되었다. 전자

혁신의 길

는 '혁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혁 명은 확실한 언어로 설명되거나 이해되 었다. 그것은 동시에 과거 많은 이들이 혹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되거나 이해 된다. '혁명'의 자리에는 '혁신'이 자리 잡았는가 하면, 이와 연결하여 '실험'과 '창조성'과 같은 단어들이 뒤따른다. 사 회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 이러한 모든 것은 개인의 변화보 다는 각자가 살아가는 조건으로서 사회 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그 변화 는 근본적인 세상의 변화라기보다는 변 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변화이고 새로운 관점의 발견이다. 그것은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한 영국의 대표적인 혁신기관 네스타(NESTA)의 대표 제프 멀건 (Geoff Mulgan)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는 이 시대의 모든 이론이 아주 단순한 오류에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는데, 그 오 류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사회 현상을 하 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혁신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 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복잡한 문제

를 단순하게 바라보거나 처리하는 일을 가끔 보게 된다. 그것은 유무형의 폭력 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상대는 복잡한 데 단순하게 반응하면 온전한 관계라고 요즘에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새로운 실험과 도 전이 바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 "뭔가 옳은 일이 이뤄지길 바란다면, 당신이 직접 하는 게 최선이다." 샤를로 트드빌모(Charlotte de Vilmorin)의 말이다. 프랑스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 휠체어를 타야 했던 그녀는, 2015년 휠 체어 탑승 차량을 알아보다가 엄청난 비 용에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스스로 방법을 찾다가 몇 달 후 장애를 가진 이 들을 위한 개조용 차량 공유 플랫폼 휠리 즈(Wheeliz)를 열었다. 프랑스에 장애 인을 위한 개조 차량이 10만 대 정도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공유 플랫폼을 연 것이다. '휠리즈'는 2017년 유럽에서 가 장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꼽혔다.

> 혁신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직접 느끼는 문제들 을 바꾸거나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 리의 삶터가 더 나은 공간으로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바뀌

는 것을 추구할 때, 그리고 이것을 단순 히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 제로 구체적인 계기와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

기술은 발달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 다. 다른 한편, 세상은 그대로이다. 겨울 은 가고 봄이 온다. 꽃은 피고 진다. 사람 은 태어나고 죽는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 리고 바로 그 사이에서 변화와 혁신은 시 작된다. 변화와 혁신은 저절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내 는 개인만이 가능하다. 비록 주어진 환 경과 조건이 공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차이가 드 러나는 서로 다른 조건 위에서 비로소 변 화를 위한 혁신은 시작된다는 사실이

한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 는지 궁금한 적이 있다. 이젠 조금은 알 것 같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조건의 '사이'에 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야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 다. 그 '사이'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축복 이다.

社說

산에도 바다에도 케이블카 열풍 몰아치는데

전남 지역에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 다. 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 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너도나도 설치 경 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 자산공원과 돌산 공원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를 비롯해 모 두 다섯 곳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 다. 5월 초에는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가 준공되고, 12월에는 해남과 진도 사이 올돌목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될 예정이다.

해상 케이블카 열풍은 대박을 터뜨린 여수에서 먼저 불을 지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2014년 말 개통 이후 국내 최초라는 경쟁력으로 연간 200만 명 가 량의 탑승객을 유치하고 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성공에는 여수 엑스포를 기 점으로 도로와 KTX 등 SOC 확충에 '여 수 밤바다' 인기가 더해진 덕분이다. 관 광객이 한때 연간 15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래 에셋 역시 돌산에서 경도를 잇는 해상 케 이블카를 추진 중이다.

케이블카 열풍은 바다뿐만 아니라 산 자락에도 휘몰아치고 있다. 구례군이 지 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4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고 담양군도 추월산과 금성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

문제는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게 될 케 이블카가 환경 훼손 논란을 떠나 수익성 을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 재 국내 22개 케이블카 가운데 흑자를 내 는 곳은 여수를 비롯해 불과 네 곳밖에 없다. 통영·사천·설악산 등 전국이 앞다 퉈 케이블카 설치에 나서는 점도 전남 지 역 케이블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 다.

출혈 경쟁이 자칫 자치단체의 부담으 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부터라도 케이블카 설치를 신중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모노레일로 케이블카 와 성격이 비슷한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막대한 적자 끝에 가동을 중지하기로 한 사례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서민 주택 국고보조금 현실에 맞게 올려야

주거 복지의 대표적 모델인 공공 임대 주택이 되레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문제다. 광주도시공사의 집계 결과 지난 2012·2013년 조성된 하남2 보금자리와 농성·주월 보금자리주택의 평당(3.3㎡) 건축단가는 각각 600만4000원, 640만 원, 광주역과 북구 임동 서림마을에 들어 서는 행복주택의 평당 건축단가는 659만 2000원이다. 이는 올해 공공 임대주택 지원 단가 기준인 평당 764만3000원에

견줘 최대 160만 원 이상 적다. 광주시에서 부족한 정부 재원으로 공 공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 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 거주하는 면 적)이 4인 가족 최소 주거면적(43m²)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남 영구 임대아파트는 주민의 입주 기피로 무려 122호(24.42㎡)가 비어 있는 실정 이다. 조성 30여 년을 넘긴 노후 영구 임 대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광주시는 이에 따라 하남 영구 임대아 파트를 대상으로 2억4000만 원을 들여 2호를 1호로 통합해 공간을 확장하는 시 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한계 가 있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주택 정책이 겉돌고 있는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해 획일적 기 준과 예산 배정, 공급 세대 수 결정 등 기 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서민의 수요를 적극 수용해 다양 한 면적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 정한 주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임 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가 현실에 걸맞은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 등의 결정권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밤! 밤! 밤! 바아아암"

아직 새벽 6시가 되지 않은 시각,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봄비라고는 하 지만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 국도는 내리 는 비 때문에 칠흑처럼 깜깜하다. 새벽 4 시부터 예불에 기도까지 하고 나선 터라 몰려오는 졸음과 사투를 벌이며 혼자 가 고 있는데, 느닷없이 베토벤의 교향곡 5 번 '운명'이 차 안을 가득 채운다. 차에서 듣는 USB는 김광석부터 바하까지 갖가 지 음악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두서없이 들어가 있다. 다음에 무슨 노래가 나올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의외성은 이 USB가 선물하는 덤이다.

아마도 나는 '운명'을 중학교 때 처음 들었을 것이다. 그리곤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는 베토벤의 말을 어디선 가 본 것도 그 즈음이었을 것이다. 베토

희망이 곧 신이다

벤의 '운명'을 알고 지낸 지 40년이 훌쩍 넘은 셈이다. 그동안 아마도 수백 번 이 상 베토벤의 '운명'을 들었을 것이다. 베 토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내 알 바 아니지만, 60을 바라보는 즈음에 와 서야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했던 베토벤의 심정을 처음으로 헤 아려 본다.

그에게 운명이란 작곡가에게서 소리 를 빼앗아 가는 냉혹하고 비정하고 잔인 한 존재다. 동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르는 무심하고 절 대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그의 '운명' 어 디에서도 신세 한탄이나 운명에 대한 증 오 같은 것은 느낄 수 없다. 오히려 후반 부로 갈수록 운명에 대항하여, 운명을 헤 쳐 나가려는 인간의 결연한 의지와 심지 어 승리의 환호까지 느껴진다.

그의 개인적인 운명을 생각하며 '운 명'을 듣고 있노라면 '운명'의 위대함에 절로 숙연해 진다. '운명'을 다시 듣고 있 자니 '운명'은 그의 희망이 아니었을까 싶다. 비록 현실에서는 운명에 난도질당 해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지라도 상상 속에서는 운명과의 목숨을 건 투쟁에서 승리하여 가슴 벅찬 감동을 토해내고 싶 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상에서 일상으로 돌아올 때 마다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게임에서 로 그아웃하여 다시 현실로 돌아온 청년의 심정과 비슷하였을까? 게임 속에서는 청 년 백수도 노력만 하면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게임은 무기 력만 안겨주는 냉혹한 현실보다 훨씬 더 살 맛나는 세상이다. 그러나 게임에 심 취하는 십대들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살맛나는 게임 속 세상은 그저 게임 속 세상일 뿐이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 닫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 때 게임에 빠져 드는 것도 현실이지만 또한 대부분의 젊 은이들이 게임 속에 안주하지 않는 것 또 한 현실이다.

예술은 다르다. 예술가의 창작 작업은 온전하게 주체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다. 상상은 그리고 예술은 인간의 전유물이 다. 현실에서 운명의 전횡이 날로 극악 무도해 질수록 예술을 향한 영혼의 자유 로운 비상은 더욱더 빛을 발한다. 냉혹 하고 무자비한 현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꿈꾸게 한다. 꿈은 예술을 통해 현실이 된다. 개인의 희망이 예술 작품을 통해 현실화될 때 비로소 개인의 희망은 많은

이들과 공유된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 을 향한 의지가 된다.

물론 갓난아기가 울며 엄마를 찾듯, 가 혹한 운명에 내동댕이쳐진 우리들은 애 타게 신을 찾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는 신을 비난하고 증 오하기도 한다. 그러나 얼굴이 상기 되 고 목이 터지도록 우는 것은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이다. 유 감스럽게도 어른이 된 우리들은 이 사실 을 까맣게 잊고 있다. 갓난아기가 울며 엄마를 찾는 것은 유일한 선택이지만, 인 간이 신을 찾는 것은 유일한 길이 아니 다. 유일한 길이 아니기에 신을 증오하 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도 불구하고 베 토벤이 교향곡 '운명'을 작곡하였듯, 인 간에게 중요한 것은 신을 향한 호소나 현 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보다 그 현실 위에 꽃피우는 희망이다. 비록 운명처럼 현실 이 무자비하고 냉혹할지라도, 희망할 수 있다면 현실은 살아갈 만하다. 죽음의 유 대인 수용소에서도 희망의 불씨 하나 마 음 속에서 꺼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살아 간다. 인간은 희망하기 때문에 존재한 다. 희망이 곧 우리들의 신이다.

기 고

아름다운 봄을 건강하게 즐기자



광주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봄의 빛깔은 다양한 몸짓으로 우리에 게 다가온다. 그중 단연 일품은 겨우내 움츠렸던 산수유, 벚꽃 등의 봄꽃이 향 기를 머금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모 습이 아닐까 한다.

'춘화경명' (春和景明)이란 말처럼 화 사하고 아름다운 봄의 경치는 우리를 산 으로 이끄는 묘한 힘이 있다. 봄날의 산 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마음의 상쾌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어쩌면 봄을 향한 기다림의 보상이라 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난해 4월 전 세계적으로 137번 째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명산 '무등산'을 곁에 두고 있는 광 주시민이라면, 기다림의 보상은 배가 될 것이다.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시 기에 사방으로 뻗어 나온 무등산의 푸른

줄기만 보아도 가슴이 설렌다"고 표현하 기도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짚어봐 야 할 것이 있다. 산행 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다. 3월부터 본격적인 산행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산을 찾는 사 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역시 증 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무등산 산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6년 246건, 2017년 310건, 2018년 283건으 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 형 또한 실족, 급성 질환 등 다양한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산악 사고를 방 지하지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안전 상식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알아두면 도 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봄철에는 한낮에 따스하던 공 기의 온도가 저녁 무렵에는 급격히 떨어 진다. 그러나 산행 중에는 시간의 흐름 을 감지하거나, 해가 저물어가는 느낌을 놓치기 쉽다. 따라서 어두워지면 길을 잃 고 허둥대기 십상이다. 때문에 산행을 하 려면 일찍 시작해서 오후 5시 이전에는

하산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복장이다. 봄철 사고는 가벼 운 차림으로 산행을 하였다가 저녁 무렵 에 기온이 하강하면서 추위에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복장과 장비를 단단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필수적으로 등산화는 꼭 착용해야 한다. 아무리 쉬운 코스라도 구 두나 슬리퍼는 금물이다. 또한 응급 약 품과 전등도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이다.

세 번째, 컨디션 조절이다. 장시간 등 산을 하다 보면 몸에 피로가 쌓이고 심장 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등산 전에 가 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면 도움 이 된다. 등산을 하면서 뛰어오르듯 산 을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체력이 떨어지면 오르내릴 때 힘들어지고, 부상 을 당하기 쉽다. 체력의 30%는 위기 상 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남겨 두어 야 한다. 또한 음식은 산행 중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

네 번째, 코스의 집중이다. 등산 중 낯 선 길이 나오거나 산행 코스가 생소할 땐 계속 가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서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 사람들이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계속 가다가 조

난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산행 전에는 기상 상태와 대피소 및 위험 지역 등의 산행 정보를 알아 두어야 한다. 재난 안전 정보 포털 앱 '안전 디딤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 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 곳곳에 위치한 119 산악 위치 표지와 구급함의 위치를 기억하고 산행하는 것이 좋다. 조난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 산악 위치 표지를 통해 요구조자의 위치를 신속히 찾을 수 있으며, 119의 안내를 통해 구급함을 활 용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당국 역시 산악 사고 집중 구조 훈 련 및 응급 의료소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을 통해 봄철 산악 사고 예방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 당국의 예방 활동과 개개인의 안전 행동이 더해진다 면, 아름다운 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 는 산행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항상 새롭 고 더 아름다운 계절이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 등산하기 좋은 계절, 특히 올해는 봄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빠를 전망이라고 하니, 봄을 즐기기 위한 준 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연둣빛 파릇한 향기 움트는 새싹뿐만 아니라 산행에 있어 안전 수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봄으로써 생동하는 자연의 모 습을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

無等鼓 🥠

전 씨,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지난주 광주 법정에 소환된 전두환이 내뱉은 말이다. 1980 년 광주 학살 이후 39년 만에 열린 광주 재판. 88세 노인으로 많이 늙긴 했어도 목소리는 우렁찼다. 광주 재판만은 피하 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기도 했지 만, 구인장이 발부되자 결국 포기했다. 그러나 역시 전두환이었다. 쿠데타를 일 으키고 한때 '각하'로 불렸던 '땡전뉴 스'의 주인공 아니었던가. 그런 그가 여 론 따위에 쉽게 굴복할 리 없다. 재판정 에 들어서는 역사적인

순간. 그는 모두가 기다 리던 사죄의 말 대신 '버럭' 역정을 부려 또

다시 공분을 샀다. 전 씨는 늘 '5·18과 자신은 관련이 없

다'고 큰소리친다. 문서로 남은 증거가 없다는 자신감 때문일 터인데, 그동안 5 •18 관련 문서 조작은 두 차례에 걸쳐 광 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985년 '80위원 회'는 지휘 체계와 작전 상황・실탄 사용 등 자료를 왜곡했고, 이어 1988년 '511분석반'은 발포 명령자·대량 살상 무기 사용・사망자 수에 이르기까지 대대 적인 은폐 공작을 벌였다.

그러나 특전사 전투상보부터 전남도

육

부 220-0697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상황일지까지 치밀하게 조작해 꼭꼭 숨겨 두었던 그날의 진실이 하나둘씩 드 러나고 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어제 광주일보에 1985년 국방부 보고서 문건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민 간인 총상 사망자 131명 가운데 47명이 LMG 기관총에 맞아 숨졌다'고 기록되 어 있다. UH-1H헬기의 M60기관총 등 에 의한 사망자로도 추정되는 대목이다. 또 지난주에는 전 주한미군 방첩 정보요 원 김용장 씨가 "1980년 5월 21일 점심

> 시간에 전두환 씨가 헬 기를 타고 광주에 와 정 호용 특전사령관 등과 함께 회의를 했고 전 씨

가 서울로 돌아간 직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미국에 보고했다" 고 증언했다.

5·18이 일어난 지 벌써 39년의 세월이 흘렀다. 진상조사위는 한국당의 비협조 로 파행을 겪고 있지만, 3인방의 망언을 계기로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는 오히 려 커져만 간다. 구순을 앞둔 전두환 씨,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당신 걱정해서 가 아니라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는 살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유제관 편집1부장. 부국장 jkyou@

※구독료월정 10,000원 1부 500원

⟨FAX 02-773-9335⟩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집 부 220-0649 (FA X 222-0195) 무 국 220-0551 과 리 국 227-9600 업 치 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